

전남 역대 최고 7위...동계체전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광주·전남 제103회 동계체전 결산

전남 선수단이 동계체전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7위에 올랐다.

광주는 코로나 확진으로 메달 기대 종목 선수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바이애슬론, 스노보드, 빙상 스피드 종목에서 선전했다.

전남선수단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경북에서 분산 개최된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6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6개 등 총 32개(산악시범 종목포함)의 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은 종합득점 314점, 종합 순위 7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전남은 1996년 첫 참가한 제77회 전국동계체전부터 이번 대회까지 통틀어 사상 가장 많은 메달, 가장 높은 종합득점을 올렸다.

전남 선수단은 5관왕 1명, 4관왕 2명, 3관왕 1명 등 다관왕을 다수 배출, 동계 스포츠 불모지 명예를 벗고 신흥 강자로 주목받았다.

지난 101회 대회에서 3관왕을 달성한 조다운(화순초 6년)은 5관왕에 올랐다. 스키 크로스컨트리(여자 13세 이하부)에서 클래식 3km, 프리 4km, 6km 계주, 복합, 0.7km 스프린트 등 5개 세부종목 금

메달을 쓸어담았다. 스키 알파인의 강다현(여수죽림초 6년)도 여자13세 이하부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전남체육회 바이애슬론팀의 티모페이 랍신과 에카테리나 암바쿠모바(석정 마크셋팀)도 각각 4관왕, 3관왕에 올랐다.

랍신은 스프린트 10km, 집단출발 15km, 22.5km 계주, 혼성계주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했다. 에카테리나도 스프린트 7.5km, 집단출발 12.5km, 혼성계주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스키 크로스컨트리는 계주에서 남자 13세 이하부와 여자13세 이하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지후(화순초)와 전다경(화순제일중)은 스키 크로스컨트리에서 각각 은메달 4개를 목에 걸었고, 남자 16세 이하부 계주에서는 선진우(장흥안양중), 정한성, 전형조(이상 화순제일중)가 단체전 은메달, 박시후(화순초, 남자 13세 이하부)는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컬링 여자 16세 이하부에 출전한 망운중학교는 동메달, 빙상 피겨스케이팅의 이지우(여수웅천중)는 싱글D조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광주는 은메달 1개 등 총 79.5점을 획득해 종합 14위로 대회를 마쳤다. 은메달의 주인공은 스키 스노보드 김예나(광주 스키협회)였다. 김예나는 지난 23일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열린 스키 스노보드 여자일반부 프리스타일 하프파이프 결승에서 71.75점으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는 전년 대회에 못 미치는 아쉬운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바이애슬론(7위), 스노보드(7위), 빙상 스피드(10위)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아이스하키, 컬링, 빙상 등 출전선수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대회에 불참해 메달 레이스에 차질을 빚었다. 한편, 이번 동계체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02회 대회가 취소되면서, 2년 만에 열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계체전 5관왕 화순초 조다운



스키 스노보드 은메달 김예나



패스할 곳이 없네 1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NBA 프로농구 경기에서 올랜도 매직 선수들에 둘러싸인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가드 버디 힐드가 패스할 곳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No War” 국제스포츠계도 러시아 제재

월드컵 출전 불가·유로파리그 실격 한국컬링, 러시아 모든 경기 보이콧 우크라이나 테니스 스비틀리나 러시아 선수 만나자 기권 선언

대한민국 컬링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모든 경기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동·하계올림픽을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본격제재에 나섰고 각국 선수들도 경기 불참을 선언하고 있다. 대한컬링연맹(회장 김용빈)은 1일 보도자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대한컬링연맹 소속 모든 팀과 선수들은 러시아와 모든 경기를 보이콧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맹은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컬링연맹(WCF) 등 국제 스포츠 기구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러시아와는 친선·연습

경기도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 컬링은 일단 이달과 다음 달에 열리는 남아미·미스터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러시아와 경기를 보이콧할 계획이다. IOC 집행위원회는 2월 28일(현지시간) 스포츠 경쟁의 정수를 수호하고 모든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종목별 국제연맹(IF)과 각종 대회 조직위원회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관계자들의 국제대회 초청 또는 참가를 불허하라고 권고했다. 집행위는 또 IF와 전 세계 스포츠 행사 주최 측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관계자들이 러시아나 벨라루스의 이름으로 참가하지 않도록 할 것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가 상징, 국가색, 국기, 국가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 ▲러시아와 벨라루스 출신 선수, 관계자를 개인이든 팀이든 중립 소속으로만 받아들일 것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IOC는 러시아가 유엔이 결의한 올림픽 휴전을 위반했다며 침공 다음 날인 25일, 러시아와 침공에 동조한 벨라루스에서 어떠한 국제 스포츠 대회도 열지 말라고 IF에 긴급 권고했다. 당장 러시아는 이달 24일로 예정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러시아는 또 7월 잉글랜드에서 열리는 UEFA 여자선수권에도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출전할 수 없고, UEFA의 클럽 대항전인 유로파리그 16강에 진출한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역시 대회에서 실격 처리된다. UEFA는 러시아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과 2024년까지 맺은 연 4000만 유로(약 540억원)에 이르는 후원 계약도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단식 세계랭킹 15위 엘리나 스비틀리나(우크라이나)가 대회 1회전에서 러시아 선수를 만나자 기권을 선언했다. 스비틀리나는 2월 28일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막한 WTA 투어 GNP 인슈어런스오픈(총상금 23만9477달러)에 톱 시드를 받고 출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진 추첨 결과 1회전에서 러시아 선수인 아나스타시야 포타포바(81위)를 만나게 되자 대회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승부차기 11-10...리버풀, 첼시 꺾고 리그컵 우승

리버풀이 기나간 접전 끝에 첼시를 꺾고 잉글랜드 카라바오컵(리그컵) 우승을 차지했다. 리버풀은 지난 2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웹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의 2021-2022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0-0으로 비긴 끝에 승부차기에서 11-10으로 이겼다. 무려 11명의 키커가 승부차기에 나선 뒤에야 승자가 가려졌다. 이로써 리버풀은 2011-2012시즌 이후 10년 만에 카라바오컵에서 우승했다. 이 대회에서 통산 9번 우승한 리버풀은 맨체스

터 시티(8회)를 누르고 역대 최다 우승팀으로 우뚝 섰다. 0-0으로 맞선 두 팀은 연장전에서도 균형을 깨지 못했고, 경기는 승부차기로 이어졌다. 첼시는 골키퍼를 케파 아리사발라가로 교체했는데, 이 교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양 팀 열 명씩의 키커가 모두 숫에 성공해 10-10이 된 상황, 마지막 키커로 골키퍼들이 나섰다. 리버풀 켈레헤가 먼저 숫을 성공시켜 11-10을 만들었고, 첼시의 마지막 키커인 아리사발라가는 실축해 회비가 엇갈렸다. /연합뉴스

광주대, 춘계대학연맹전 우승 축구부 격려



김혁중(가운데) 광주대학교 총장이 지난 28일 학교 행정관 회의실에서 '제58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우승기와 트로피를 전달받고 코치진과 선수들을 격려했고 있다. <광주대 제공>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는 지난 28일 학교 행정관 회의실에서 '제58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우승을 차지한 축구부 코치진과 선수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김혁중 총장은 김황용 기획처장, 윤홍상 학생지원처장 등과 함께 축구부를 대표해 참석한 이승원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과 선수들에게 우승기와 트로피를 전달받고 금일병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회 최우수상을 받은 주장 박지우, 수비상 박수완, 골키퍼상 전병훈을 비롯한 선수 전원이 참석했다. 김혁중 총장은 “축구부가 전국 규모의 큰 대회 우승을 통해 학교의 명예를 드높였다”며 “선수들이 많이 노력했지만, 뒤에서 묵묵히 지도해준 코치진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광주대는 지난 27일 경남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58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결승에서 중원대를 이기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며 대회 통산 3번째 우승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언차티드
- 2관 국장판 주술회전 0
- 3관 해적: 도깨비 깃발
- 4관 언차티드
- 5관 언차티드
- 6관 안테벨룸
- 9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 7관 세네케를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나일 강의 죽음, 광대: 소리꾼
- 8관 세네케를 안테벨룸, 시라노, 킹메이커, 나이트메어 앨리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일시 : 2022.03.03.(목)-04.(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2.03.25.(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